

권혁홍 회장, 중국 미국 종친회장에 부회장 임명장 수여

안동권씨 대종회 미국과 중국, 일본을 잇는 국제네트워크 구축

권혁홍 회장은 권오덕 중국 청도종친회장
과 권태형 미국 미주종친회장에게 대종회
부회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권오덕 중국 청도종친회장은 지난 8월 5
일 오전 10시 한국에 업무차 출장왔다가 권
혁홍 회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권태정 수석부회장과 권행완
편집국장이 배석했다. 권혁홍 회장은 권오
덕 회장에게 대종회 부회장에 임명되었으니
앞으로 대종회와 중국 종친회 간 교류와 협
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임명장과 함께 꽃다발을 주며 축하하면서
제20대 회장 취임 기념으로 제작했던 메달
타이슬링 30개를 중국 종친들에게도 전달해
달라며 선물로 줬다.

권오덕 회장은 대종회 부회장으로 임명
해 주셔서 고맙다. 지난 2020년 3월 안동권
문의 분향인 안동이 코로나 어려움을 겪
고 있을 때 중국 청도안동권씨종친회에서
족친들이 성금 800여만 원을 모아 대종회
에 보내준 적이 있다. 성금을 모금할 당시에
“종친 여러분, 우리 조상은 안동권씨입니다.
얼어진 동지에 성한 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조의 음덕 아래 현재 융성하게 번
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가(古家) 안
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친 여려
분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안동에 보낼 성금을 모집하고 있습니
다.”라는 안내문을 내걸자 미국 뉴욕에 거주
하는 족친과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는 족친
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대거 참여하여 3일
만에 모금이 되었다고 말했다. 청도종친회
에는 지금도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혁홍 회장은 안동권씨 후손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잠으로
가슴 뭉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번
성금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청도종
친회와 대종회가 더 돈독하게 지냈으면 한
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은 그때 보내
주신 성금으로 살균소독제를 한 트럭 구입
해서 당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이어, 권혁홍 회장은 미주 안동권
씨 종친회 권태형 신임 회장에게 지난 8월
19일 대종회 부회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



권행완 사무총장, 권혁홍 회장, 권오덕 중국청도 종친회장, 권태정 수석부회장(왼쪽부터)



권행완 사무총장, 권혁홍 회장, 권태형 미주종친회장, 권태정 수석부회장(왼쪽부터)

명장과 함께 꽃다발로 축하하며 메달 타이
슬링을 직접 목에 걸어 주었고, 미국 종친들
에게 전해 달라며 메달 타이슬링 30개를 선
물로 전달했다.

수여식에는 권태정 수석부회장과 권행완
편집국장이 배석했다. 권혁홍 회장은 권태
형 미주종친회장에게 이제 대종회 부회장
이니 자부심 갖고 명함에 새겨서 다니라고
덕담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
와 미국과 중국 일본이 소통할 수 있게 창구
를 만들어 교류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태정 수석부회장은 뿌리교육이 중요하
다. 대종회와 서로 연결하여 모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했
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태형 부회장은 앞으로 미주 안동권씨
종친회는 대종회 부회장으로서의 책임과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종회와 긴밀히 협
력하여 종친회 발전은 물론 전 미주에 흩어
져 있는 안동권문 후손들의 화합과 교류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것이
라고 말하며, “종친회에 1.5세, 2세 차세대
를 적극 영입시킬 예정”이고 “앞으로 현세대

와 차세대를 연결하기 위해서 한글 족보책
자를 영문으로 번역, 전 세계 재외동포 안동
권씨 차세대에게 보급하고, 뿌리알기교육장
학재단을 설립해 차세대들에게 역사와 뿌리
를 실제로 교육받고 체험할 수 있도록 힘쓰
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태형 회장은 특히 새로운 차세대가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
스러운 안동권문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더욱 발전된 미주 종친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여식이 끝나자 대양그룹에서 마련한
포도존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권 신임회장은 17세에 미국에 이민 온 1.5
세로 버룩(Baruch) 뉴욕시립대 및 페이스대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후 미 해군에
서 6년 복무했다. 2022년 연방국세청에 입사
해 현재 감사로 일하고 있다.

제20대 권혁홍 회장 체제의 임원으로 미
국과 중국 종친회장을 대종회 부회장으로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중국과 미국과 일본
을 잇는 안동권씨 대종회 국제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중국과 미주 안동권씨 종친회와 대종회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종친
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뜻깊
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독립유공자 스마트 안내판 제막식 거행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8월 12
일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하여 유
족과 보훈단체, 시민이 참여한 가운
데 경북 구미 왕산 허위 선생 묘소에
서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1호 스마트
안내판 제막식’을 거행했다.

스마트 안내판 설치 사업은 AI 시
대에 맞춰 국가보훈부가 기획한 야
심작이다. 묘소 앞 안내판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면 국가보훈부 공

훈전자자료관의 기록과 바로 연결
된다. 독립유공자 한 분 한 분의 삶과
나라를 위해 바친 헌신과 희생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권오을 장관은 “선조들이 물려준
나라를 담당하고 떳떳하게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몫”
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2026年 9月 찬조금 및 임원 회비 납부 내역	
〈찬조금〉	
이치대첩 찬조	
추밀공파	1,200,000원
권혁홍 대종회 회장	1,600,000원
권주현 대종회 고문	200,000원
권기성 전주완주종친회 회장	200,000원
권오신 전주완주종친회 자문위원	100,000원
〈임원 회비〉	
부회장	
권우영(대구 달성)	1,000,000원
이사	
권민호(경남 산청)	3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합계 : 4,600,000원	
〈인사발령〉	
권행완 사무총장 겸 편집국장 (26.9.1)	
안동권씨대종회	

仲秋佳節

100만 족친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안동권씨 대종회장 권혁홍 외 임직원 일동